

GIST 학부생,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 은상 수상

- 송혜근 학생, 작년 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... 수학 부전공 과정이 대회 준비에 큰 도움



▲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혜근 학생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제41회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학부생이 은상을 수상**했다고 밝혔다.

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혜근 학생(지도교수: 김의환)은 **작년 제2분야 은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**를 안았다.

대한수학회는 **1982년부터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**해 오고 있으며, 대학생들에게 수학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**기초 학문 발전과 우수한 이공계 인력 배출에 크게 기여**해 왔다.

출제 범위는 미적분학, 고등 미적분학, 정수론, 선형대수학, 미분방정식, 기하학 개론 등 **대학교 수학과 1~2학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출제**되며, 제1분야(수학 및 수학 관련 학과 대학생)와 제2분야(제1분야 이외의 학과 대학생, 통계학과 포함)로 나뉘어 열린다.

지난 2010년에 문을 연 GIST의 학사과정은 모든 이공계 분야의 기초 학문인 수학 부전공 과정 외에도 인문학·사회과학, 문화기술, 에너지, 지능로봇, 의생명공학 등 다양한 부전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있는 **융합인재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송혜근 학생은 "GIST의 수학 부전공 과정을 통해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었고, 선형대수학 교과 조교 활동을 통해 **바른 풀이를 작성하는 것을 많이 연습**한 덕분에 2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한편, 대한수학회 주최로 열린 제41회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는 (주)좋은책신사고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11일(토) 개최됐으며, 12월 14일(목) 수상자를 공개했다.